

도킨스의 과학적 무신론에 대한 유신론적 한 답변

박종균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면서
- II. 도킨스의 과학적 무신론
- III. 맥그라스의 도킨스 비판
- IV. 신의 복잡성에 대한 논증
- V. 신의 단순성에 대한 논증
- VI. 나오면서

• ABSTRACT •

The design argument is simply put as follows: 1. Some things are very complicated. They contain many parts which fit and work together in an orderly and regular manner to achieve their end. 2. This complexity is evidence of design - the parts could not have come together in this way by chance - they must have been put together deliberately to achieve their purpose. 3. Where there is evidence of design, there must be a designer. In the case of a watch, this is the watchmaker. 4. The universe shows evidence of design. Nature has many complicated parts which work together to achieve their end (e.g. the eye, the pollination of flowers by bees, the orbits of the planets, the conditions of the Big Bang). They could not have come together in this way by chance. 5. If the universe shows evidence of design, then it must have a designer. Therefore God exists.

But Dawkins claims that Darwinism made it possible to be an intellectually fulfilled atheist. It is improbable that organised complexity should exist unexplained. Atheistic Darwinism is able to explain how organised complexity arises from simple, physical ultimates. God is useless as an explanation of organised complexity since he must have organised complexity and God's organised complexity would exist unexplained. So, God is both unnecessary and useless as an explanation of organised complexity and improbable in his own right. There is certainly no God.

McGrath criticizes Dawkins' claims as follows: Darwinism does not explain everything, and no explanation of God's complexity is needed. God is not complex, but simple. From this, Swinburne argues that God hypothesis is very simple and requires few complicating assumptions that invite further explanation.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God's knowledge of the world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his irreducible ability to choose among alternatives based on their value need not be organised improbable.

Key words: design argument, Dawkins, Darwinism, McGrath, Swinburne, irreducible complexity

I. 들어가면서

무신론자 도킨스(Richard Dawkins)는 기독교 변증의 한 방법인 ‘틈새를 메우는 신’ 접근법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틈새’란 실재에 대한 자연주의적 혹은 과학적 이해에는 필연적으로 ‘틈새들’이 있다는 것이며, 이런 틈새를 다루기 위해서는 신을 상정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페일리(William Paley)로 대표되던 설계 논증, 즉 세계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과 같은 과학적 설명에 나 있는 틈새들에 기초하여 ‘지적 설계자’를 주장하는 운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란 오늘날 비헤(Michael Behe)가 다윈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내세우는 핵심 개념인데, 유기체 현상은 너무도 복잡하여 맹목적인 법칙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란 여러 개의 상호 연관된 부분들이 기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어떤 한 부분이 제거되면 그 체계의 기능이 멈추게 되는 단일체계를 의미한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체계는 앞선 체계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변형—즉 동일한 기제에 의해 작용되는 처음 기능의 향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겨난 것일 수 없는데, 그것은 앞선 체계가 한 부분이 빠져버린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체계이기에 그 정의상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¹⁾

그렇기 때문에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생물학적 체계는 일순간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지 자연선택에 의한 점진적 진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²⁾ 간단히 말해, 설계 논증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으로 인해 신은 존

1) Michael Behe, *Darwin's Black box: The Biochemical Challenge to Evolution* (New York: Free Press, 2006), p. 39.

2)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체계에 대한 물리적 실례로 비헤는 쥐뿔을 예로 들고 있다. 그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개의 부분(베이스, 스프링, 햄머 등등)이

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킨스는 그러한 복잡성에 대해 신은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다원주의로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신의 존재는 실증적으로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틈새를 메우는 신(God of the gaps)’ 접근법은 신 가설이 어떻게 세상의 상태를 설명하는지 묻는 많은 기독교 접근법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진화론과 기독교 신앙의 양립가능성을 주장하는 맥그라스(Alister McGrath)는 과학적 이해 속에 있는 틈새에 신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고자 하는 것에 “신을 평가나 연구의 영역 너머 우주의 숨겨진 구석에 강제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한다.³⁾

그리고 스윈번(Richard Swinburne)은 보다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학이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능력 자체가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설명 능력에 대한 가장 경제적이고 신뢰할 만한 설명이 창조자 신이라는 개념 안에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⁴⁾ 우주의 가해성(intelligibility), 즉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나 있는 틈새들이 신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일순간에 생겨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점진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한 부분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의식적인 존재에 의해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이어야만 하는데, 유기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혜에 의하면 유기체란 바로 ‘부분들의 계획된 배치’인 것이다. Ibid., p. 193.

3) Alister McGrath, *Dawkins' God: genes, memes, and the meaning of life* (Padstow: Blackwell, 2005), p. 47. “틈새를 메우는 신”에 대한 고전적인 비판은 본회퍼가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확대해가면 이와 더불어 신은 옅으로 밀쳐지고, 후퇴 일로를 거듭하게 되기 때문에 신을 우리 인식의 보충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디트리히 본회퍼, 고병서 역, 『옥중서신』(서울: 기독교서회, 1980), p. 17.

4) Richard Swinburne, *Is There a G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과학적 이해 방식 그리고 다른 이해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이해 가능성(comprehensibility)이 신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 이해 가능성이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논증을 전개한다. 과학적으로 더 진보할수록 이 성공을 설명해야 하는 필요도 더 커질 것이며, 이는 과학적 연구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더 권하고 더 장려해야 할 접근법이라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근거한 신 존재 논증과 이에 반박하는 도킨스의 과학적 무신론의 입장을 논의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신의 복잡성의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다윈주의를 신봉하는 도킨스에 대한 맥그라스의 비판적 주장을 검토할 것이다. IV장에서는 맥그라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그의 주장들, 즉 다윈주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주장, 신의 복잡성은 설명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 그리고 신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주장이 검토될 것이다. V장에서는 과학적 이론의 단순성이야말로 관찰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 검증기준임을 주장하며 유신론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임을 논증하는 스윈번(Richard Swinburne)의 논의를 통해 신은 환원 불가능하게 복잡하거나 비개연적이지 않음을 해명하고자 한다.

II. 도킨스의 과학적 무신론

유기체가 많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고도의 정밀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살아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페일리⁵⁾나 도킨스는 공히 그렇게 고도로 정밀한 배열이 우연에 의해서

5) 페일리는 17세기 이후 계몽주의 이념이 가져온 합리적 의심과 회의주의의 힘이 정통

형성되었을 개연성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존하게 될 방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게 될 방식이 훨씬 더 많은 것은 확실하다.”⁶⁾

그리하여 자연 내에서 그러한 유기체들의 복잡성은 특정한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 그것은 시계와 같은 인간적 설계의 산물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까닭에 그것은 모종의 설계하는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페일리는 『자연신학』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⁷⁾

내가 황무지를 건너다가 나의 발이 ‘돌’ 하나에 걸렸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돌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그 반대의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돌은 항상 거기에 놓여 있다고 아마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답의 어리석음을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돌이 아니라 ‘시계’를 땅에서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시계가 그 장소에 있게 되었는지를 질문할 터인데, 앞에서 했던 대답, 즉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시계는 항상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대답은 거의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대답이 돌뿐만 아니라 시계에도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페일리는 돌과 같은 지극히 단순한 물리적, 자연적 대상에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을 우려하였던 바, 자신의 신존재 논증을 통해 기독교신앙인들에게 신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페일리는 뉴턴의 기계적 자연 관념을 동원해 철학적 논증의 힘을 빌려 신앙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 목적을 위해 ‘설계 논증’을 고안한 것이다.

6) R. Dawkins, *The Blind Watchmaker* (London: Penguin Books, 1991), p. 9.

7) William Paley, *Natural Theology: or, Evidences of the Existence and Attributes of the Deity, collected from the Appearances of Nature* (London: Coachwhip Publications, 2005), p. 7.

서 시계와 같이 제작된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간다. 그는 시계 속의 부품들이 보여주는 형태와 그 복잡하고도 정교한 구조를 서술한다. 만약 우리가 시계와 같은 대상을 발견할 때 그것의 기원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상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시계는 제작자가 있어야 한다. 어느 때이든, 어느 곳이든,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제작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 그는 시계의 제작법을 알고 있으며 그것의 용도에 맞게 설계했다.⁸⁾

페일리에 따르면 이 결론은, 우리가 시계 제작 과정을 경험하지 않아도, 또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되어도 그와 상관없이 유효하다. 또 시계의 용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 결론은 성립한다. 그리고 시계의 부품들과 시계의 용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 이해 못해도 이 결론은 약화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시계의 존재가 제작자 없이 시계 부품들의 질서의 원칙만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말에 만족하지 못한다.

나아가 시계의 존재는 금속 본성의 법칙으로부터 결과된 것이라는 설명도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칙은 행위자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법칙은 행위자가 진행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이며, 법칙은 행위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⁹⁾

한마디로, 기계적 대상 혹은 고안(contrivance)의 흔적이 있는 곳에는 이를 설계한 그리고 제작한 행위자가 따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일리는 시계에 대한 분석을 신체와 같은 자연적 대상으로 적용해서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를 구성하고자 한다. 인간과 동물의 뼈와 근육 그리

8) Ibid., p. 8.

9) Ibid., p. 9.

고 곤충의 구성 조직에 페일리는 주목한다. 페일리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것들이 보여주는 구성과 질서는 하나의 기계적 조직화로서, 설계적 지성의 존재를 강력히 함축한다. 예컨대 사람의 눈은 그 어떤 인위적인 고안품보다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고 고도로 기계적이다. 페일리에 따르면, 눈 하나만으로도 신적 행위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¹⁰⁾

그러나 도킨스는 다윈이 설계 논증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한다. 다윈 이전에는 설계 논증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윈 이후에는 설계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으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페일리의 논증은 열정을 갖고 만든 것으로 그 당시 최고의 생물학적인 지식이 담겨 있지만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망원경과 눈, 시계와 살아 있는 유기체의 유비는 잘못된 것이다. 어쨌든, 자연의 유일한 시계제조공은 특별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물리학의 맹목적 원동력이 아니다. 참된 시계제조공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톱니바퀴와 스프링을 디자인하며, 마음의 눈으로 미래의 목적에 맞게 부품들 간의 관계를 조정한다. 다윈이 발견하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선택은 모든 생명의 존재와 그것의 설계된 형식을 설명하는 맹목적이며 무의식적인 자연 발생적 과정으로서 설계에 대한 어떤 의도도 없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정신이나 마음의 눈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미래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통찰력도, 아무런 생각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것이 자연에서 시계제조공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시계제조공이다.¹¹⁾

도킨스는 더 나아가 ‘설계 논증’에 대해 신은 스스로 훨씬 더 복잡해져야 하기 때문에 조직화된 복잡성에 대해 신은 만족할만한 설명을 제공해

10) Ibid., p. 16.

11) R. Dawkins, *The Selfish Ge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5.

줄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유기체의 현란한 배열을 구성할 능력이 있는 그 어떤 계획자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지적이고 복잡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잡하다는 말은 확률적으로 비개연적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¹²⁾ 그러니까 도킨스에 의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실한데¹³⁾, 그의 주장은 무언가를 설계할 수 있는 신은 그 자체가 같은 종류의 설명을 요구할 만큼 복잡해야 할 것이고, 신은 무한 회귀를 나타내며, 신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다.¹⁴⁾ 신은 자신이 창조한 대상보다 훨씬 더 설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무언가를 설명하는 어떤 것 그 자체는 설명되어야 하고, 이 설명은 차례로 또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명들의 무한 회귀를 끝내는 정당한 방법이 없으며,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누가 설계자를 설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¹⁵⁾ 결국 조직화된 복잡성을 해명하려는 탐색 과정에서 신은 우리로 하여금 설명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개연성이 없는 신의 복잡성 문제에 봉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도킨스는 자주 흄(David Hume)을 언급한다. 흄은 『자연종교에 관한 대화』에서, 등장인물 필로의 입을 빌려, 신적인 정신에서의 질서는 물질적인 세계처럼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 위에 세계의 질서에 대한 해명으로 설계한 신을 가정하는 클리안테스의 주장에 반대한다.

정신적 세계 또는 관념의 세계는 물질적 세계 또는 대상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원인을 요구하며 만일 배열적으로 유사하다면 유사한 원인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식의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12) R. Dawkins, *Climbing Mount Improbable* (New York: W. W. Norton, 1996), p. 77.

13) R. Dawkins, *The God Delusion* (London: Bantam, 2006), pp. 173-246.

14) Ibid., p. 172.

15) Ibid., p. 123.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¹⁶⁾

자연세계의 고도로 정밀한 배열이 하나의 설계자를 요청한다면, 신의 정신을 포함한 고도의 세밀한 관념들의 배열들 또한 설계자를 요청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설계자는 또 다른 설계자를 필요로 할 것이고 이는 무한히 소급될 것이다. 설계자 모델을 신봉하는 유신론자는 신의 설계자들과 신의 설계자들의 설계자들을 무한한 퇴행을 향해 나아가든지 아니면 정밀한 배열은 반드시 설계가 요청된다는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든지 해야 한다. 신의 정신에서 설명되지 않는 조직화된 복잡성을 만일 자연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그것의 수용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므로, 설계자로 조직화된 복잡성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설명에는 암암리에 퇴행, 즉 설계자의 정신은 원래의 복잡성이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요구하는 조직화된 복잡성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킨스는 신은 자연에서 조직화된 복잡성을 위한 훌륭한 설명이 아니라는 흠의 사고에 동조하면서, 동시에 자연 세계의 조직화된 복잡성에 대한 만족스런 설명을 다윈의 진화론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자연 선택적 변이의 누적으로 인한 진화는 단순한 것으로부터 조직화된 복잡성을 서서히 증진시키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 비개연성이라는 문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각각의 조각은 약간 비개연적이긴 해도 심하지 않은 것이며, 이렇게 약간 비개연적인 사건들이 연속해서 쌓이게 될 때, 그 최종적인 산물은 아주 비개연적인, 도저히 우연으로서는 도달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비개연적으로 된다는 것이다.¹⁷⁾ 따라서 자연에는 환원 불

16) David Hume, *Dialogues Concerning Natural Religion* (Cambridge: Hackett Pub Co., 1998). p. 33,

17) 도킨스는 ‘산 오르기’ 비유를 통해 이 점을 쉽게 설명한다. 산의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가능한 복잡성이란 없는 결코 없는 것이며, 실제로 누적적인 자연 선택의 진화론은 조직화된 복잡성을 지닌 존재를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 되는 것이다.¹⁸⁾

도킨스에 따르면, 무신론이 비록 다윈 이전에 논리적으로 지지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지적으로 완성된 무신론으로 정립 가능하게 된 것은 다윈 때문이었다는 것이다.¹⁹⁾ 다윈은 무신론자들에게 조직화된 복잡성에 대한 만족스런 설명을 무장시켜주었으며, 다윈주의는 생물학적 세계에 대한 설계 논증에 대한 완벽한 반론임인 동시에 설사 설계적인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궁극성에 대한 완벽한 자연주의적 해명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설계 논증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으로 인해 신은 존재한다는 것이었고, 도킨스는 흠의 논지대로 그러한 복잡성에 대해 신은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다윈주의로 단순하게 해명될 수 있는 바, 결과적으로 신은 실증적으로 개연성이 없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III. 맥그라스의 도킨스 비판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에 나타난 도킨스의 무신론적 논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 설명되지

절벽이 있고, 다른 한 쪽은 정상까지 완만한 비탈을 이루고 있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 우연이나 자발적으로 자체 조립될 수 없다는 생각이 절벽의 밑에서 단번에 정상까지 뛰어 오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진화론은 산을 돌아서 완만한 비탈을 오르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18) R. Dawkins, *The Blind Watchmaker*, p. 317.

19) Ibid., p. 6.

않은 채로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 무신론적 다윈주의는 조직화된 복잡성이 어떻게 단순한 물리적 궁극성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신은 우리가 해명하고자 하는 바로 그 성질인 조직화된 복잡성을 지니고 있고 신의 조직화된 복잡성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있을 것이기에 신은 조직화된 복잡성의 해명에 무용지물이다. 신은 조직화된 복잡성의 해명으로서 필수적이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가능성은 당연히 없다. 고로 신은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²⁰⁾

도킨스는 신은 복잡해야 한다는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증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가 염두에 두는 복잡성에 관한 단서가 있다. 이는 전지성(omniscience)은 엄청난 복잡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데이비스(P. Davies)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²¹⁾ 도킨스는 두뇌와 컴퓨터의 정교한 복잡성을 말하고 있으며,²²⁾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은 실제로 거대한 복잡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에게는 혼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과학은 그 혼이 심층적인 물리적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복잡성은 의식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킨스는 또한 은근히 신의 의식을 말한다.²³⁾ 신의 정신에는 복잡한 관념들의 조직화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적인 창조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신의 고도로 정교화된 일련의 관념은 관념들이 배열될 수 있는 무한한 방식들과 비교해서 볼 때 통계적으로는 개연성이 없다. 신의 인간 관념은 인간의 두뇌를 구체화시켜 모든 신경과 그것의 연결을 가장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신의 관념들은 그

20) R. Dawkins, *The God Delusion*, 4장.

21) Paul Davies, *The Goldilocks Enigma* (London: Penguin, 2006), p. 249.

22) R. Dawkins, *The God Delusion*, p. 154.

23) Ibid., p. 149.

것이 복잡한 피조물을 완벽하게 세밀화하기 때문에 극도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방식으로 조직화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결국 신의 정신에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관념이 어떤 종류의 실체로 간주된다면, 신은 무한히 많은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겨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신의 복잡성의 문제에 대해 도킨스는 일반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맥그라스(Alister McGrath)의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맥그라스는 생명체의 배열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설계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적이고 복잡해야 한다는 도킨스의 주장²⁴⁾은 선택에 대한 신중한 논증이나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한다.²⁵⁾ 맥그라스는 다윈적인 진화가 암시하는 것처럼 신은 환원 불가능하게 복잡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매우 복잡한 실체들이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매우 오랜 기간 단순한 과정을 거쳐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²⁶⁾

둘째, 맥그라스는 도킨스가 복잡성과 비개연성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동일시될 수 없으며 복잡성이 비개연성을 함의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²⁷⁾ 도킨스는 ‘복잡한 것이 비개연성의 또 다른 말’이라는 그의 주장에서, 『눈먼 시계공』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잡성은 비개연성, 즉 오직 우연에 의해 생명과 기능에 필요한 부분들이 정밀하게 배열될 수 있는 것의 통계적인 비개연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맥그라스는 자연과학은 ‘궁극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 즉 대통일이론

24) R. Dawkins, *Climbing Mount Improbable*, p. 77.

25) Alister McGrath, *Dawkins' God*, p. 93.

26) 맥그라스는 다윈주의와 전통적인 기독교신앙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보면서, 오히려 무신론과 다윈주의 사이에 근본적인 논리적 틈새가 있다고 지적한다. 도킨스는 이 틈새를 증거가 아닌 레토릭으로 메우려는 역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Ibid., p. 156.

27) Ibid., p. 93.

28) R. Dawkins, *The Blind Watchmaker*, p. 9.

(grand unified theory)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그 이론 자체가 설명을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궁극의 이론은 여전히 그것이 설명하는 모든 데이터들 보다는 단순화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도킨스는 신은 설명하려는 것보다 더 복잡할지도 모른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맥그라스의 견해는, 다른 것이 동일하다는 조건이라면, 더 복잡한 이론이 더 열등한 설명이라는 것이다.

셋째, 맥그라스는 비개연성에 관한 도킨스의 말이 모호하고 부정확하다는 것이다.³⁰⁾ 도킨스는 신이 어떻게 비개연적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다만 신이 극도로 비개연적이라고만 말한다. 그의 주장은 허리케인이 야적장에 쌓여 있는 부품들에 바람을 불어 보잉 747을 조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개연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³¹⁾ 맥그라스는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비개연성이 결정되는가를 질문한다. 도킨스는 이러한 비개연성은 사물들이 배열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과 유용한 기능을 갖는 매우 적은 수의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고 본다. 직관적인 계산에 의해서 볼 때, 척추동물의 눈이 우연히 발생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 아무리 많은 방식으로 척추동물의 눈을 이루는 부분들이 아무리 조합을 거듭해도 우연히 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신의 경우 도킨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상론하지 않으나,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 또는 관념의 복잡한 배열과 유사한 복잡한 의식의 상관물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맥그라스는 어떠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개연성이 언제부터 결정하는지를 묻고 있다. 도킨스의 『불가능한 산 오르기』(*Climbing*

29) Alister McGrath & J. McGrath, *The Dawkins Delusion? Atheist fundamentalism and the denial of the Divine* (London: SPCK, 2007), p. 43.

30) Ibid., p. 90.

31) R. Dawkins, *The God Delusion*, p. 114.

Mount Improbable)는 생물학적인 유기체와 같은 비개연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책은 다윈주의적 과정을 통해 지적인 유기체들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유신론적 논증이 말하는 최고의 지성, 우주의 설계자로서의 신이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런 존재는 진화의 마지막 단계, 즉 점진적 진화의 최종 산물로 출현한 것이라 단언한다.³²⁾ 그러나 사실 생물학적 유기체와 달리 신은 어떠한 설명이 없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신과 생물학적 유기체의 유비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신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믿음은 이러한 비개연성을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그라스는 정작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도킨스가 말하는 믿을 수 없는 가정들보다 훨씬 믿을만하다는 점을 논증하지는 않는다.

끝으로, 맥그라스는 신이 왜 설명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³³⁾ 맥그라스는 과학은 우리가 궁극적인 것으로 수용해야 하는 사실들의 수를 축소시키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말한다.³⁴⁾ 맥그라스는 신이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이 주어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사실 다시 말해 하나의 궁극적인 존재로 존재하기 보다는 왜 설명이 요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설명자에 대해서는 무엇이 설명해주는가 하는 물음과 함께 ‘궁극의 이론’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³⁵⁾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신이 필요 없는 물리학적 단순성과 비교했을 때 신은 너무나 환원 불가능하게 복잡하기에 하나의 궁극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설명자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도킨스의 논점을 비껴나가고

32) Ibid., p. 51.

33) Alister McGrath, *Dawkins' God*, p. 94.

34) Paul Kitcher & W. Salmon (eds.) *Scientific explanation* (Nim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9), pp. 410-505. Alister McGrath, *Dawkins' God*, p. 94에서 재인용.

35) Alister McGrath & J. McGrath, *The Dawkins Delusion?*, p. 9.

있는 것이다. 신의 정신은 우주의 모든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다. 다윈주의적 무신론이 복잡성과 지적인 것을 물리학의 보다 단순한 궁극성의 용어로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면, 신의 정신과 관련된 이 많은 사실들이 설명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IV. 신의 복잡성에 대한 논증

신의 복잡성에 대한 세심한 논증을 도킨스가 하지 않는다는 맥그라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그의 논증을 검토할 것이다. 고로 다윈주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주장, 신의 복잡성은 설명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 그리고 신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주장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다윈주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다윈주의는 진화를 발생시키는 법칙적이고 잘 조준된 물리학이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도킨스의 견해로는 물리학적 법칙의 통일성은 단순하다. 즉 비록 우주의 다양성은 과도할 정도이지만 근본 법칙은 단순하기에 우주의 다중성이 보호된다는 것이다.³⁶⁾ 그러나 이것은 법칙성과 생명을 탄생시키는 다중 우주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매우 특별한 성질을 무시하는 것이다. 심지어 도킨스도 물리학은 다윈주의만큼 만족할만한 이론을 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³⁷⁾

또한 다윈주의는 의식의 난점, 즉 의식과 같은 경이로운 것이 두뇌에서 물리적 과정을 통해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리학에서의 객관적인 성질은 주관적인 경험과는 개념적

36) R. Dawkins, *The God Delusion*, pp. 147-148.

37) Ibid., p. 158.

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외로 이 문제는 도킨스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일 수 있다. 과학은 객관적인 성질을 주관적인 성질로부터 구별 지으면서, 그리고 객관적인 성질을 더욱 근본적인 객관적인 성질로 해명하면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주관적인 성질의 것에도 과학이 그러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의 설계는 의식을 포함하고 있고, 다윈주의는 이러한 설계를 설명한다는 도킨스의 주장은 성급한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을 만들 능력이 있는 신이 지극히 복잡해야 하기에 신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도킨스의 주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둘째, 신의 복잡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보자. 델 라치(Del Ratzsch)는 우리가 설계자를 위한 설명을 갖지 못할 때조차 설계를 제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든다.³⁸⁾ 만일 화성에서 순수한 티타늄으로 된 완벽한 큐빅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외계인이 그것을 제조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외계인으로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그 큐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명의 압박을 받을 때 후자의 사람들은 외계인의 행위 이론 옹호자들이 외계인이 어디서 왔는지 외계인이 그 큐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외계 이론은 설명되지 않은 큐빅 이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은 분명한데, 큐빅은 지적인 주체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의 큐빅의 경우, 그것이 다윈주의적 진화로 설명될 수 없다하더라도 외계인의 존재는 가

38) Del Ratzsch, *Nature, Design and Science: The Status of Design In Natural Scien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p. 135.

능한 것처럼 보인다. 고로 외계인의 가정은 불가해한 조직화된 복잡성의 극단적 비개연성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킨스는 신의 존재는 그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전략은 유신론을 정당화하면서 설명의 역할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신을 믿는 자들은 이것이 마치 일종의 과학적 가설인 것처럼 신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는다. 대신 신자들은 신 의식과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같은 신앙의 특별한 원천에 의지한다.³⁹⁾ 하지만 도킨스가 신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설명이라 말할 뿐 아니라, 신은 극단적으로 비개연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 긴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린다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신학적 전통이나 지적 정합성을 추구하려는 신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신이 설명적인 가설이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단지 신앙에 호소함으로써 그것을 제거하려는 대응은, 신앙은 증거와 근거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하나의 변명이라고 비판하는 도킨스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⁴⁰⁾ 도킨스의 주장에서 잘못된 것을 보여주어야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도킨스의 전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와 같이 물질적 대상은 시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 또한 기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¹⁾ 신은 피조된 물질적 대상이 아니며 하나의 시작을 갖지 않지만, 이것이 그의 복잡성을 해명해 주지는 않는다. 처음 시작된 유일한 사물들만이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제안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퀴나스나 라이프니츠의 논증은 우주는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그것은 설명될 필요가 있

39) Alvin Plantinga, *Warranted Christian Belief* (Oxford: Clarendon, 2000).

40) R. Dawkins, *The Blind Watchmaker*, p. 198.

41) Ibid., p. 141.

다는 것을 보여준다. 페일리(William Paley) 또한 시계와 같이 복잡한 것이 설명 없이 언제나 존재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한다.⁴²⁾ 만일 신이 처음이 없다면 어떻게 신이 시작되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복잡한 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해명하는 것은 아니며 설명되지 않는 복잡성의 문제를 제거해주는 것도 아니다.

셋째, 신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해보자. 신이 부분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도킨스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보인다. 만일 신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들을 재배열하거나 기능적인 배열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해 보인다.

V. 신의 단순성에 대한 논증

스윈번은 종교적 이론과 과학적 이론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을 보여 줌으로써, 종교적 경험의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논증함으로써 신 존재의 개연성을 높인다고 믿는 유신론자이다.

먼저 스윈번은 과학적 실천에 의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단순한 이론이 진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스윈번에 의하면 제시된 어떤 법칙이 정확한 자연법칙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에 의해 정당화, 즉 매우 개연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⁴³⁾

- (1)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관찰하는 많고도 다양한 사건들을 어느 정도 정

42) Ibid., p. 4에서 재인용.

43) R. Swinburne, *Is There a God?*, p. 25.

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2) 제안된 것이 단순하고,

(3)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지식에 잘 부합되고,

(4) 그 주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발견하리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스윈번은 위의 기준들이 작용하는 역사적 사례를 든다. 화성 운동을 연구한 케플러는 기존의 연구로부터 화성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 즉 화성의 이동 경로, 화성의 미래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는 천체지도 위에 이미 관측된 일련의 화성의 과거 위치들을 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위치들을 지나는 하나의 곡선으로서 어떤 법칙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이런 법칙은 (1)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 다르게 생긴 무수한 곡선들이 똑같이 기준 (1)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있다. 그 곡선들에 의하면 화성은 타원형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또는 그 타원형과 비슷한 나선형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크게 벗어날 수도 있다. 이것들 외에도 예측할 수 있는 화성의 움직임은 무수히 많다. 과연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스윈번에 의하면, 가장 그럴듯한 곡선은 가장 단순한 것이다. 그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 가운데 거의 전부를 배제하는 과정에 기준 (2)는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기준 (3) 역시 적용된다. ‘배경 지식’이라는 말은 ‘근접한 영역의 물체들의 작용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온에서 A라는 기체의 운동 방식에 관한 이론을 고찰할 때 만약 우리가 B, C, D 라는 기체들이 저온에서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는 기준 (3)은 제시된 법칙이 얼마나 더 폭넓은 지식에 부합되는지의 정도만큼 충족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케플러는 화성의 궤도를 예측함에 있어서 그가 갖고 있던 다른 행성들의 운동 방식에 관한 지식을 참고했다. 만약 그가 다른 행성들은 타원형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운동한

다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비록 나선형의 궤도라는 것은 타원형의 궤도에 비해 기준 (1)을 덜 만족시키는 법칙이지만, 그에게는 더 단순한 타원형의 궤도보다는 나선형의 궤도를 선호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시된 어떤 법칙이 아무리 기준 (1), (2), (3) 모두를 충족시키더라도, 만약 그 기준들을 더 잘 충족시키지만 상반되는 법칙이 존재한다면 모두 다 법칙이 될 수 없으므로, 전자는 반드시 부인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스윈번이 제시한 기준 (4)의 의미이다.

그런데 위의 네 개의 기준들 가운데 어떤 이론이나 법칙들의 ‘단순성’이 가장 중요하다. 스윈번에 의하면 한 이론이 지닌 단순성은 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법칙들이 서로 잘 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케플러 법칙의 효력은 태양의 질량이 행성들의 질량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뉴턴 법칙의 효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뉴턴의 이론을 진리라고 믿는 근거(기준 1)는 우리가 그의 이론으로부터 여러 다른 분야—케플러의 법칙들, 갈릴레오의 낙하법칙, 행성의 위성들의 법칙, 조수의 법칙, 진자의 법칙 등—에 걸쳐 우리가 뉴턴의 이론 외에는 별다른 유효한 이론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을만한 법칙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준 4). 뉴턴의 세 가지 운동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은 제시될 수도 있는 그 어떤 다른 대안들에 비해 간결하다(기준 2).⁴⁴⁾

이론의 단순성의 중요성은 기준 (3)이 기준 (2)로 환원된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하나의 법칙이 다른 법칙에 부합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스윈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화성의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법칙은 타 행성들의 운동에 관한 그의 법칙들에 부합했는데, 왜냐하면 그 법칙들 모두 동일한 형식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i) ‘타 행성들은 항상

44) Ibid., pp. 28-29.

타원형으로 운동하고, 화성도 항상 타원형으로 운동한다'라는 법칙들의 조합이 (ii) '타 행성들은 타원형으로 운동하고, 화성은 나선형으로 운동한다'라는 것보다 더 선호되는 이유는 바로 (i)이 (ii)보다 단순하기 때문이다. (i)은 관련된 법칙들의 범위 내에서는 단순히 '모든 행성들은 타원형으로 운동한다'라는 말로 진술될 수 있지만, (ii)의 경우 이와 같은 일반화는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i)보다는 더 복잡하다.⁴⁵⁾ 그러므로 "어떤 법칙들이 과연 관찰된 자료들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간결함이다. 단순성이라는 기준 없이는 관측자료들에 부합하는 무수한 이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⁴⁶⁾

하지만 단순성에 대한 선호가 단지 이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즉, 단순성에 대한 선호는 진리의 관심과는 무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윈번은 이러한 반론이 오류임을 지적한다. 인간은 항상 미래를 예측해야 할 필요를 가지며, 그런 예측은 인간의 생존뿐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인간은 과거의 관찰결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이론을 이용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이론들이 갖는 예측들이 전부 동일하게 진리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의 이론보다 다른 이론을 더 신뢰하는 것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이론을 다른 이론보다 더 신뢰하며 또 그렇게 여기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어떤 이론의 단순성을 그 이론이 갖는 진실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⁷⁾

45) Ibid., p. 29.

46) Ibid.,

47) Ibid., p. 31.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행성이나 원자들을 가정하는 것처럼, 만일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인격체를 가정하는 것이 네 개의 기준들을 잘 충족시키면서도 현상들을 설명한다면 그런 인격체를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스윈번의 생각이다.⁴⁸⁾

위의 네 가지 기준들은 관찰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무수한 주장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리일 개연성이 가장 큰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어떤 분야든 우리가 발견하는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단순한 가설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이 유신론의 단순성이다. 스윈번에 의하면 유신론이 최소한의 원인만을 가정하는 단순한 설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한다.⁴⁹⁾

유신론은 그것이 지닌 단 하나의 원인인 하나의 인격체에게 인격체들이 갖는 본질적 속성들의 무한한 정도를 가정한다.⁵⁰⁾ 즉 신이 지녔다고

48) 과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정확한 어떤 실제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미 과학에서는 천왕성의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관찰 불가능했던 또 다른 행성의 존재를 가정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진리임이 입증되었고 그 행성이 바로 해왕성이다. 해왕성을 가정하지 않으면 천왕성의 이동행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뉴턴의 이론은 폐기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수많은 가능성 중 가장 단순한 설명은 '뉴턴의 이론은 진리이고 그 가상의 행성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49) Ibid., p. 43. 스윈번은 세 가지 궁극적인 설명, 즉 유물론, 인본주의, 유신론을 언급한다. 유물론은 '인격적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인들의 존재와 작용이 충분한 무생명적 (inanimate) 설명을 한다'는 견해인데, 이는 인격체들이 지닌 믿음, 목적 등은 단지 물체들이며 그것들이 지닌 물리적 상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Ibid., p. 40). 인본주의는 "인격적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들의 존재와 작용은 무생명적인 것들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반대로 무생명적 설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들의 존재와 작용은 인격적인 것들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Ibid.)는 이론이다. 그리고 유신론은 무생명적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들의 존재와 작용은 인간 인격체들뿐만이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인격적 존재자, 즉 신을 포함하는 인격적 견지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Ibid., p. 41). 그런데 스윈번은 유물론과 인본주의는 매우 복잡한 가설인 반면, 유신론은 궁극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단순한 가설이라고 주장한다(Ibid., p. 42).

50) Ibid., pp. 43-44.

여겨지는 다양한 속성들—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식, 무한한 자유—들은 곧 신이 지닌 단순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무한성을 지닌 존재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설은 제로의 한계를 지니는 인격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항상 매우 큰 한정된 양을 가정하는 것보다는 무한대의 양을 가정하는 편을 더 단순한 것으로 간주해왔으며, 전자와 후자가 똑같이 관찰 결과를 예측할 경우에는 항상 후자를 가정했다는 것이다.⁵¹⁾

이로부터, 스윈번은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은 매우 단순하고 최소의 복잡한 가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신은 육신이나 물리적인 지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순수하고 한계가 없는 의도적인 힘으로 성격지울 수 있다.⁵²⁾ 의도적인 힘은 쉽게 경험되어 지고, 무한한 존재이며 그것의 한계를 위해 어떠한 설명도 필요치 않다. 더욱이 신의 힘이 무한하기 위해서는 신의 지식은 무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신의 전지는 그 가설에 대해 논리적으로 부가된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연한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다. 신의 전지가 가정된다면 신은 어떠한 행위가 선택한지 인식할 것이고, 신의 순수하고 무한한 힘이 가정된다면 그의 선에 대한 선택은 제한되지 않을 것이 바, 신의 도덕적 완전함 또한 그의 무한한 능력에 부합되는 것이다. 더욱이 신은 더 많은 설명을 불러일으키는 시공간적인 어떠한 한계나 어떠한 물질적이고 에너지적인 양도 포함하지 않는다. 신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에 신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다른 모든 것이 신에게 의존한다. 그래서 신은 논리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구체화시키는 쉽게 경험되는 성질을 가진 하나의 실체라는 점에서 단순하다. 신은 더 이상의 설명을 요하는 유한한 한계나 양을 지니지 않는다.

51) Ibid.,

52) R. Swinburne, *The Christian God* (Oxford: Clarendon, 1994), p. 151.

어떠한 유한한 한계를 지니지 않은 성질에 의해 신이 단순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는 스윈번의 주장에 대해 도킨스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우주에서 모든 부분의 개별적 상태를 계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신은 단순하게 될 수 없다. 고로 신의 존재는 의당 최소한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단순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신의 위대한 의식의 후미진 곳은 모든 개별적인 인간의 행위나 감정 그리고 기도에 사로잡혀 있다.⁵³⁾

도킨스에 따르면 의식은 두뇌, 즉 의식 문제의 복잡한 상관물 같은 복잡한 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그것은 인간적 관념의 복잡한 조직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인 신의 의식이 설명될 수 없는 조직화된 복잡성이라는 도킨스의 비판은 어떤 식으로 반박될 수 있는가?

신의 정신은 피조물과의 유비에 의해 두뇌나 CPU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도킨스의 생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비물리적인 신이 자신의 물리적 피조물을 닮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신의 무한한 능력은 하부적인 구조 또는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의 결과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며 환원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식능력이 조직화된 부분들의 상호작용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물리적인 유기체에서는 진리일 수 있으나, 개념적으로 진리일 수는 없다.

신이 구체적인 가능성들을 현실화시키기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신이 그것들의 가치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구체적인 지식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무한한 의도적 힘을 가정한다면, 신은 자신의 뜻대로 만물을 현실화시킬 수 있으며 자신이 실현시키려고 뜻하는 것을

53) R. Dawkins, "Review of Richard Swinburne's *Is There a God?*", *The Sunday Times*, 4 February 1996.

인식함으로써 현실적인 것을 단순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창조를 현실화시키려는 신의 의도는 신의 가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인식과 그것들을 선택하는 무한한 능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선택은 우리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선택들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선택하려는 것의 모델이 되는 바, 스윈번이 주장하는 모델은 설명에 대한 만족할만한 형식을 제공해준다 하겠다.⁵⁴⁾

VI. 나오면서

과학과 기술 문명이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는 이 시대, 과학이라는 기치하에 모든 것을 과학 안에 융해시키고자 하는 시대적 움직임은 자칫 과학 절대주의에 빠져들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신 존재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날 수밖에 없으며, 신적인 모든 것 역시 과학의 이름으로 경험과 검증의 차원으로 떨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과학이 세계 존재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시 되는 하나의 비판적 기준일망정, 인간 지성이 진리와 사물들의 확실성에 도달하는 데 요구되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비판기준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과학은 세계에 관한 수수께끼와도 같은 많은 문제들을 해명하고 풀어주었으며, 세계 현상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제공해 줌으로써 신비와 같은 허상들을 실재의 틀 안에서 교정시키는 가운데 그 실상을 해명해 주었다. 앞으로도 세계 현상에 대해 과학은 향상된 도구와 방법론을 통해 더 확실한 해명을 해줄 것에 대해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과학이 모든 것이라는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과학은 과학 자체의 문제, 가치 문제, 인간 사유, 세계와 인간 존재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해

54) R. Swinburne, *The Existence of God*. p. 106.

결책을 제공해줄 수 없다.

다윈주의적 과학적 무신론에 의존하는 도킨스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이유로 신 존재를 논증하는 유신론적 태도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다윈주의는 그 모든 것을 해명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킨스의 무신론에 대해 비판하는 맥그라스를 넘어 유신론자 스윈번은 그러한 무신론적 논증에 대해 그것들을 심각하게 취급해야 하고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한 무신론적 논증을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신을 모욕하는 것이며 신은 우리에게 이성을 통해 과학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한다.⁵⁵⁾

본 연구를 통해 도킨스의 주장대로 다윈주의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해명되었다. 신은 자신의 선택적 인식에 무한한 다양성이 있다하더라도 환원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단순하고 피조물과 같은 실제적 구성과 한계들을 결하고 있다할 것이다. 신의 의식은 조직화되고 구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포괄적이기에, 그것을 설명할 특별한 설계적 논증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복잡한 창조에 대한 고도로 정밀한 개념을 포함하는 정신의 개연성은 무한한 변화의 경우를 고려할 때 확률적으로 지극히 낮아 보인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신적 인식은 무한하고 포괄적이기에, 실제 세계에 대한 신의 인식은 선택해야 할 것들의 가치에 기초해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본질적 능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

55) Richard Swinburne, 「자연신학자로의 소명」, Kelly James Clark ed., *Philosophers Who Believe*, 양성만 역, 『기독교철학자들의 고백』(서울: 살림출판사, 2006), pp. 422-423.

다. 신의 선택하고 의도할 수 있는 능력은 복잡성이나 다양한 실체들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인 바, 그러므로 스윈번의 주장처럼 유신론은 설명되지 않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나 신의 비개연성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연이 존재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onhoeffer, Dietrich. 고범서 역. 『옥중서신』. 서울: 기독교서회, 1980.
- Clark, Kelly James, ed.. Philosophers Who Believe. 양성만 역. 『기독교철학자들의 고백』. 서울: 살림출판사, 2006.
- Behe, Michael. Darwin's Black box: The Biochemical Challenge to Evolution. New York: Free Press, 2006.
- Davies, Paul. The Goldilocks Enigma. London: Penguin, 2006.
- Dawkins, Richard. "Review of Richard Swinburne's Is There a God?" in The Sunday Times. 4 February, 1996.
- _____. Climbing Mount Improbable. New York: W. W. Norton, 1996.
- _____. The Blind Watchmaker. London: Penguin Books, 1991.
- _____. The God Delusion. London: Bantam, 2006.
- _____. The Selfish Ge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Hume, David. Dialogues Concerning Natural Religion. Cambridge: Hackett Pub Co., 1998.
- Kitcher, Paul & W. Salmon, eds.. Scientific explan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9.
- McGrath, Alister & Joanna McGrath. The Dawkins Delusion? Atheist fundamentalism and the denial of the Divine. London: SPCK, 2007.
- McGrath, Alister. Dawkins' God: genes, memes, and the meaning of life. Padstow: Blackwell, 2005.
- Paley, William. Natural Theology: or, Evidences of the Existence and Attributes of the Deity. collected from the Appearances of Nature. London: Coachwhip Publications, 2005.
- Plantinga, Alvin. Warranted Christian Belief. Oxford: Clarendon, 2000.
- Ratzsch, Del. Nature, Design and Science: The Status of Design In Natural Scien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 Swinburne, Richard. Is There a G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_____. The Christian God, Oxford: Clarendon, 1994.

논문투고일 : 2011. 10. 31

심사개시일 : 2011. 11. 18

게재확정일 : 2011. 12. 17

• 국 문 초 록 •

합리주의적인 사고의 급속한 발달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신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초월적인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과학적 무신론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윈주의적 과학적 무신론에 의존하는 도킨스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이유로 신 존재를 논증하는 유신론적 태도에 대해 근본주의적 적대감을 표출한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다윈주의는 그 모든 것을 해명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룬다. 첫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근거한 신 존재 논증과 이에 반박하는 도킨스의 과학적 무신론의 입장이 논의된다. 둘째, 신의 복잡성의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다윈주의를 신봉하는 도킨스에 대한 맥그라스의 비판적 주장이 검토된다. 셋째, 맥그라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그의 주장들, 즉 다윈주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주장, 신의 복잡성은 설명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 그리고 신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주장이 검토된다. 넷째, 과학적 이론의 단순성이야말로 관찰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 검증기준임을 주장하며 유신론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임을 논증하는 스윈번의 논지를 통해 신은 환원 불가능하게 복잡하거나 비개연적이지 않음을 해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과학적 무신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설계 논증, 도킨스, 맥그라스, 스윈번
